

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

WEF Issue & Insight

2025년 6월 9일, WEF 4차산업혁명센터, 대한민국 경기도

[센터 웹사이트\(koreago.net\)](http://koreago.net) 보기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이 세계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표어는 '불확실성'

(Uncertainty is the watchword as chief economists assess
the state of the global economy)

-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제 환경의 핵심 특징이라는 분석입니다. 세계 경제포럼(WEF)의 **최신 수석 이코노미스트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수석 경제학자들의 82%가 현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으며, 56%는 향후 1년 내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지역별 성장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미의 경우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한편, AI의 발전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응답자의 47%는 AI 기술과 관련된 순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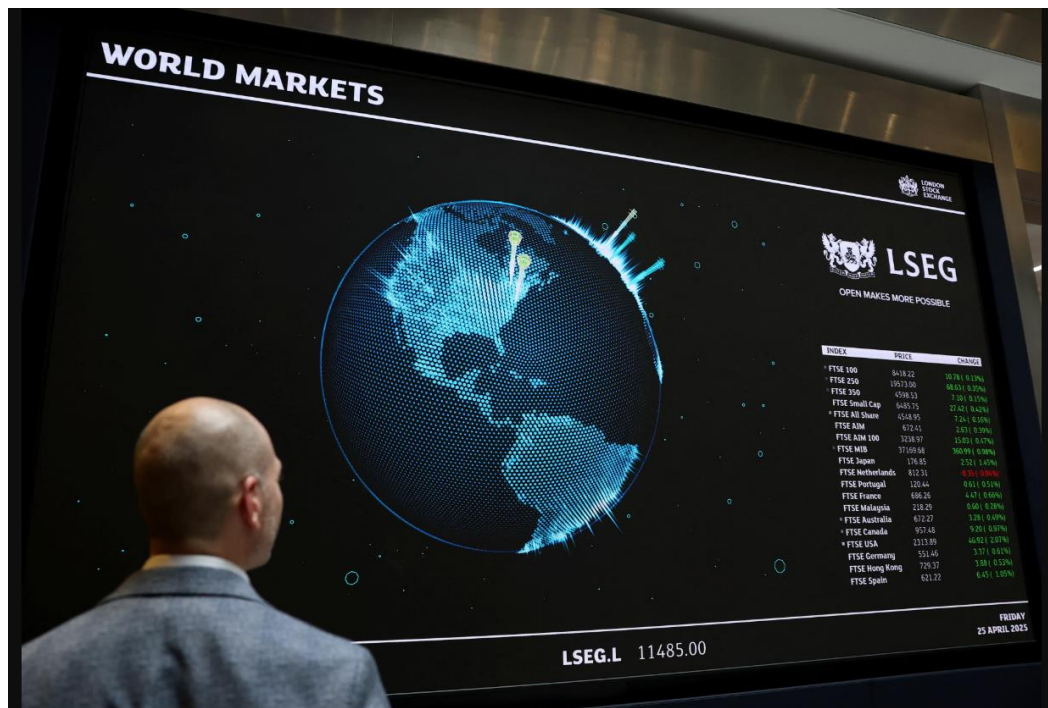
* 본 자료는 세계경제포럼이 분석하여 2025년 5월 28일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번역하여 옮긴 것입니다.

앵거스 콜린스(Aengus Collins)

세계경제포럼(WEF) 경제성장, 회복, 전환 부문 책임자

필립 그로스쿠루스(Philipp Grosskurth)

세계경제포럼(WEF) 경제성장, 회복, 전환 부문 인사이트 책임자



‘불확실성(uncertainty)’이 올해 글로벌 경제를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수석 이코노미스트 전망 (Chief Economists Outlook) 2025년 5월호’에 따르면, 전 세계 수석 경제 학자들은 글로벌 경제가 전혀 없는 구조적 변화와 정책 불확실성, 기술 혁신이라는 복합적인 변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경제포럼 산하 신경제 및 사회센터(Centre for the New Economy and Society) 주도로 작성되었으며, 이 센터를 이끄는 사디아 자히디(Saadia Zahidi) 세계경제포럼 전무이사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무역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욱 높은 수준의 국제 협력, 민첩한 전략 수립, 인공지능(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오늘날 경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헤쳐 나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를 회복하고 성장을 이룰 수 있을 전망입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고조되는 글로벌 불확실성, 경기 전망 및 기업 전략에 직격탄

수석 이코노미스트 전망 보고서는 연간 3회 정기적으로 발간되며, 이번 보고서는 2025년 4월 상반기(4월 초~중순)에 수석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마침 글로벌 경제에서 무역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시기였기에 경제학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산업계 및 국제기구 소속 수석 경제학자들은 현재 글로벌 경제를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응답자의 82%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가운데, 56%는 향후 1년 내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도 21%에 달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무역정책(97%), 통화정책(49%), 재정정책(35%)을 불확실성이 높은 주요 분야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당초 예정되어 있던 대부분의 관세 부과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단기적인 안도감은 형성되었으나, 이후의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특히 미국 경제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WORLD
ECONOMIC
FORUM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수석 경제학자의 비율

82%

현재 매우 높음

56%

1년 뒤에는 완화될 것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3대 분야

무역 정책

97%

통화 정책

49%

재정 정책

35%

Source:
World Economic Forum.
(2025). Chief Economists
Outlook: May 2025.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수석 경제학자들의 평가

기업들의 대응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학자들의 87%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기업들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연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경기침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경제, 지역별 전망 '희비 교차'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제 전망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합니다. 응답자의 77%는 2025년 미국 경제가 악화되거나 매우 약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응답자의 79%)과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응답자의 76%)도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재정 확대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수년 만에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올해 5% 성장 목표 달성 여부를 두고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아시아는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33%가 이 지역의 국가들이 올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구조적 변화 가속... 글로벌 공급망 전략 수정 불가피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글로벌 경제 환경을 뒤흔들고 있는 지정학적 변화와 경제 정책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문
에 응답한 경제학자들의 79%는 이러한 변화를 글로벌 경제 환경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신호로 평가했으며, 이는 2024년 11월 조사 당시(61%)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새로운 시대

WORLD
ECONOMIC
FORUM

미국의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79%

장기적 산업 구조 변화

21%

단기적 혼란

Source:
World Economic Forum.
(2025). *Chief Economists
Outlook: May 2025.*

수석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경제 장기적 변화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제학자 전원이 기업들이 향후 3년 내에 관세나 수출 통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급망과 물류 재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짐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한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취리히보험(Zurich Insurance)의 수석 경제학자인 가이 밀러

(Guy Miller)는 "단일 시장(end market)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라며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추진해야 하며, 세계화(Globalization)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화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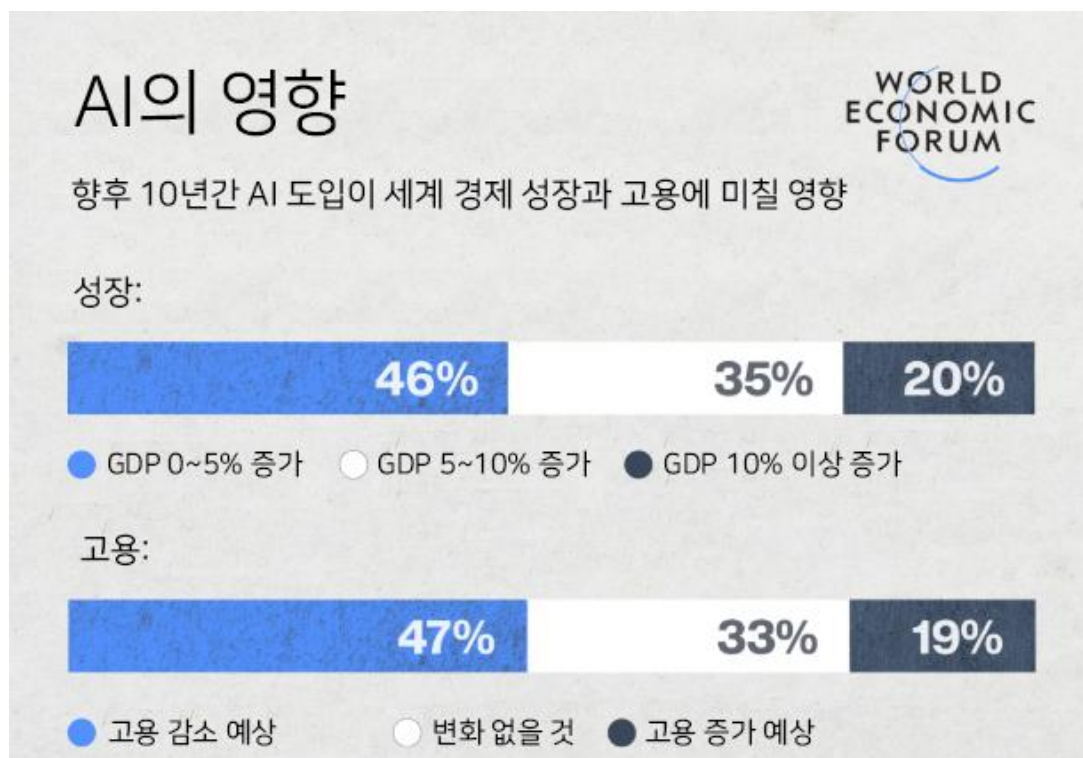
기업들은 전례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경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AI 충격'의 본격화... 성장 기대와 고용 불확실성 교차

급속도로 진행되는 AI 기술의 발달도 이번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의 주요 변수로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설문 조사의 응답자 중 45%는 AI가 올해 중 파괴적인(disruptive)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응답자들은 대체로 향후 10년 동안 AI로 인해 글로벌 실질 GDP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응답자의 46%는 0~5%포인트 상승을, 35%는 5~10%포인트 상승을 예상)

고용과 관련된 전망은 훨씬 신중합니다. 경제학자들의 47%는 향후 10년 내에 순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으며 순고용 증가를 예상한 응답자는 19%에 그쳤습니다.





경제학자들은 AI가 세계 경제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대해 구글의 수석 경제학자인 파비앙 쿠르토 밀레(Fabien Curto Millet)는 "추정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만, AI는 향후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라고 밝히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변화로,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AI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주요 경로로는 업무 자동화(68%), 혁신 가속화(62%), 근로 생산성 향상(49%)이 꼽혔습니다. 반면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는 허위정보 및 사회 불안정 조장(53%), 시장 독점 심화(47%), 기존 비즈니스 모델 붕괴(44%)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속되는 불확실성... 경제 회복과 성장의 관건은 대응 전략

세계경제포럼이 이번에 발표한 '수석 이코노미스트 전망'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

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역, 통화, 재정 정책 전반에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정부와 기업 모두가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과 회복력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해 나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적·경영적 민첩성을 높여가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WEF 해당 사이트 및 관련 동영상 보기](#)